

「월간강해설교」 2008년 10월호

이 집에서 종에 불과합니다

사무엘상 연구

앨런 P. 로스
샘포드대 비슨신학대학원

김광모 역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들어가는 말

텔레비전의 인기 있는 고전적 프로그램 “위층사람들/아래층사람들”(Upstairs/Downstairs)은 부유한 런던 한 가정(위층)과 그들의 충성스런 하인(아래층)의 활동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압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규칙과 가치 체제에 따라 생활합니다. 위층 사람들이 항상 귀족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특권층이며, 출생으로 인해 그 계층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위층사람들과 아래층사람들과 같은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래층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종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종의 상태로 있으면서 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으려면, 곧 동료 그리스도인들 위에 오르지 않으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역사적 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며, 그 땅에서 견고히 서게 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놀라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강케 회복하신 기도응답, 혹은 미래를 계획하도록 물질을 주심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공급일 수 있습니다. 물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런 좋은 선물들이 우리의 위안과 누림만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축복은 섬기는 일에 헌신을 요구하는 거룩한 신뢰입니다.

고대 세겜에서 감사제를 드릴 때,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수 24:15). 여호수아와 그의 청중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충격적입니다. 언약공동체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우리가 섬기기 위해 여기에 존재함을 상기시켜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참 감사는 말이나 상징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삶으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아래층에 살면서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는 내용에 새로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때로 섬기는 일에 헌신해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섬김의 피상적인 국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발췌기나 기념일에 행하는 사랑이나 동정의 일시적 활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는 영적 의무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 너무나 많은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를 종 삼아 주시지 않겠습니까?”라는 가사의 짧은 찬송을, 그것이 마치 버팀목이듯이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길 원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나 섬김의 헌신이 내실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는 “여호와와 종”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 칭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와 종이었습니다. 메시아도 여호와와 종입니다. 그 칭호는 율법 조항은 물론이며 율법 정신에 충실한 신앙인을 기술했습니다.

여호와와 종이란 뜻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인 다윗왕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고, 그를 사울왕과 대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주제설교, 곧 성경에 기초한 전기 연구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상서롭게 출발했습니다. 사울은 능력 있는 전사, 빈틈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다윗으로 대체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진실한 종으로 만든 것을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다섯 가지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강해

I. 진실한 겸손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초석이다

첫 번째 대조는 사울이 거절된 후 다윗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기술된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아들에게 기름 붓기 위해 이새에게 갔습니다. 물론 이새는 건장한 아들들이 예언자 앞을 지나게 했습니다만, 아무도 인상적이지 않았습니 다. 마침내, 나머지 아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중에 부름 받았습니 다. 사울과는 달리, 그는 인상적인 전사, 곧 키가 크고 건장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앓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7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이 마음에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 첫 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날부터 그에게 임했습니다. 주목의 대상이 되며 능력을 받은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왕을 상상해보십시오! 그의 모든 형제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그와 함께 하며 연주하도록 보낸 후에도, 다윗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삼상 17:15). 가서 왕관을 쓰기보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그의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실 위대한 일을 계획했습니다만, 그는 책임 있게 일을 감당했으며, 여호와께서 그 지위에 그를 임명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사울과는 다른, 겸손한 종, 여호와께 순종하는 종을 만납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의 의무를 찬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건방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울과 같은 왕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겠지만,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어 자신의 권위를 높이며 지나치게 권세를 남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줄곧 사람들을 이용해서 상처를 주면서 파괴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력이 아닙니다. 이방 권세에 불과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시다만, 특별히 한 외국인 학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지도자, 신학대학원 총장이 될 영적 지도자, 재능있는 교사, 저술가, 설교자,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원 재학시 정부는 그에게 캠퍼스 안에서만 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당, 사무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쓰디쓴 한 숨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용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일을 신실하게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도 수업 참여와 같이 그의 훈련 과정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한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초석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패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케노시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위대할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II.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익숙한 이야기를 대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듯이, 사울은 백성들의 챔피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거느리는 전사-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대결을 벌이자, 사울은 그의 텐트에서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사울은 “열방의 왕처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인간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절실할 때 여호와 안에서 충분한 힘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의 능력은 충분했지만, 생애의 위대한 도전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윗은 그의 형들을 위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사울에게 가서 자신이 그 거인과 대결할 기회를 주도록 설득했습니다. 사울의 무기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매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매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그의 손에 붙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17:46).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전형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위험, 어리석은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되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주인을 잘 알기에, 주인께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은 세미나 혹은 방법론, 절차와 정책으로 대체됩니다. 기도는 어디 있습니까?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신중과 계산이 믿음의 팔을 묶었습니다. 현대교회는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단 말입니까? 의무감이 없다면, 선교의 필요도, 전도도, 의의 승리도, 믿음의 변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의자에 앉아 평소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잔디밭 의자에 앉아 일광욕을 즐기던 사람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친구들은 어느 날 오후 헬륨 기구를 의자에 묶고 그와 함께 그 기구를 풀었습니다. 기구는 높이 올랐습니다. 교통 통제관들은 LAX에 접근하는 비행기에서 온 보고, 곧 11,000피트 항공에 잔디 의자에 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에 놀랐습니다. 헬륨이 빠지고, 그 사람은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경찰관과 기자들에 둘러 싸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는 질문에, 그는 “여러분은 그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그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의 중요한 일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광욕을 즐기면서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여 그의 믿음이 역사하도록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역사가 교회들에, 지역에, 대체로 교회에 증가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기꺼이 행동해야 하며 수반되는 모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상기시켜야 합니까? 우리는 약빠른 사업원칙과 신중한 계산에 따라 일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해에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요? 옛 말이 참입니다. 허공을 겨냥하면 항상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III.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진실로 복종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촉진시킨다

다윗-사울 이야기는 사울이 어떤 식으로 연결부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의 주목 대상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대중적 지지가 다윗에게로 옮겨진 방법을 표현한 민요입니다. 그들 관계의 이 국면은 비교와 경쟁에 모든 이유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게 함

니다.

사울은 시기심으로 소진되었으며, 다윗을 죽이려는 노력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는 우울증과 광기에 빠졌으며, 그의 거친 영을 진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감성 넘치는 노래하는 사람 다윗이 그를 위해 하프를 연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종종 죽이려 했습니다.

이 태도는 가인과 아벨 시대만큼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보다 좋은 사람으로 대체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인의 방식, 혹은 사울의 방식을 따르신다면, 여러분의 의뢰는 그 사람을 파괴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인색함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가정, 교회 기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과 사울처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증오의 또 다른 형태가 그리스도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동굴사건은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울을 죽이고 위협하는 적을 처치할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을 처치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 섬기는 일에 견고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불신하거나 과멸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복종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 지낼 때, 우리는 한 방문 선교 강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는 선교 현장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채플에 참석한 상급생들은 그의 설교를 냉혹하게 비판하여 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한 학생이 그들을 돌아보며 그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그가 설교를 잘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급생들은 이 순진한 학생에게 관심이 있으면 가서 왜 그리 설교가 나쁜지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가서 질문했습니다. 그는 중한 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아프리카에 두고,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30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으며, 쉬거나 원고를 점검할 시간도 없이 설교해야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교활한 비난, 정치적 영향, 직접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참된 종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단념시키지 말고, 힘을 다해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군가 좋은 사역을 하고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뤄지는 일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며, 상대화하며, 방해한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IV. 죄에 대한 진실한 통회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유지한다

사울과 다윗이 범죄한 일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죄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다루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도자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으면 해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참으로 회개하면 그렇게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죄에 대해 흥미로운 대조를 보입니다.

사울이 지은 첫 번째 주요 죄는 사무엘이 오길 기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언자의 지위를 차지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는 예언자를 만났을 때 논리적으로 판단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삼상 13:11, 12). 그는 적들이 모이는 것을 봤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월권행위를 한 사울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그의 나라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삼상 13:14).

사울이 지은 두 번째 죄는 아말렉 왕 아각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일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자신들을 위해 최상의 것들을 약탈했고, 하찮은 것들만 파괴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삼상 15:13). 사무엘을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여전히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탈취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 그러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그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제가 범죄했습니다”고 고백했습니다. 변명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 후에 시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영적 이유를 제시하려 노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소용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죄 용서 받기보다 체면 유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야기에서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에 달라붙어 사람들 앞에 동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조금이나마 동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참으로 뉘우치고 마음에 변화를 보이면 동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의 죄는 사울의 죄보다 악합니다. 그의 주요 죄는 밋세바를 두고 탐욕, 간음, 속임수, 살인 등입니다. 사무엘은 왕들이 백성들의 것을 탈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윗은 이방왕들처럼 처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나단을 만났을 때 다윗은 슬픔에 가득찼으며, 참으로 통회하며 여호와께

죄를 고백했습니다(시 51편). 그는 발각되고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 죄에 괴로워했기에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에 관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해 생각하시는 바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지도자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죄 짓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려면 자신과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 지 압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죄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모양의 섬김으로 감추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참된 종은 깊이 통회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립니다. 통회의 증거는 변화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울의 말, 곧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 후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변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죄용서에 관한 우선적인 일을 모릅니다. 지도자들은 용서, 특히 겸손 그리고 용서받은 일에 대한 동정심을 알아야 합니다.

영화 “쥘리 리스트”(Schindler's List)에, 악한 지휘관이 발코니에 있는 그의 편한 자리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저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 자리는 권세와 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쥘리서는 실제 힘은 사면에서 온다는 점을 표현합니다.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재판하고, 정죄하고 또 형벌을 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화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으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와 화해를 잘 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두 명의 학생이 실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아니라 특별히 강압이나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일을 바로 잡겠습니다.” 제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문제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태의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는 은밀히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V. 하나님께 진실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은 역경도 견딘다

일이 우리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울은 그가 왕으로서 거절되었다는 점을 잘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셨으며, 악한 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어떻게 전쟁이 패하게 되었는지 알았어야 하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엔도의 무당을 찾았습니다.

사울, 그는 한때 땅에서 그런 강신술을 제거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운동

대상이 최종적 파멸의 수단이 되었다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래를 알기 위해 영들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율법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시지 않은 그릇된 계시나 정보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두렵고 놀랄만한 운명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낀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조롱해도 충성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는 더 진지하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해 몰두했습니다. 다윗 신앙에서 이런 국면이 없었다면 우리가 고민과 문제에 휩싸였을 때 가까이 두고 읽을 시편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시류의 거짓 종교적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여호와께 충성합니다.

두 해 전, 트리니티신학대학원의 두 신학자가 영국신학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짐바브웨로 갔습니다. 모인 학자 중 절반은 미국신학대학원에서 왔으며, 나머지 절반은 아프리카 연구기관에서 왔습니다. 많은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신앙의 “문화화”를 다뤘습니다. 일부 미국교수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죽은 조상의 영에 대한 아프리카 사상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임재이며, 그렇기에 분명한 대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 흑인이 일어나,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고 말했습니다. 미지의 사후 생명에 직면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뜻만이 참됩니다. 어떤 선택안이 제시될지라도, 우리는 한분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우리 생각과 달리 활동하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며 다른 곳에서 대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맺는 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는 용기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했습니다. 그는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모든 일이 그릇되어 보여도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종”이라 불렀으며 그와 영원한 언약, 곧 여호와의 종으로서 메시아와 그 통치를 허락하신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적합한 특징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거절되어 역사 가운데 사라진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은 세상이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책임을 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종입니다. 누가 최고의 기여를 합니까? 재치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항상 기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실하며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가장 유용한 빛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있는 전구가 보다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밤에 넘어져 다치지 않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성공으로 간주하는 성공에 감명 받기도 합니다. 그러

나 성경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종과 함께 하시는 일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